



크리스천 사이언스란 무엇인가?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발견하고 창시한 메리 베이커 에디 여사는 이를 “하나님의 법, 선^善의 법...” (“신성한 과학의 기초 *Rudimental Divine Science*”)이라 정의하였다. 무한한 사랑이며, 변함없는 선^善이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는 누구든지 치유하고 구원하며 회복시킬 수 있는 기도로 인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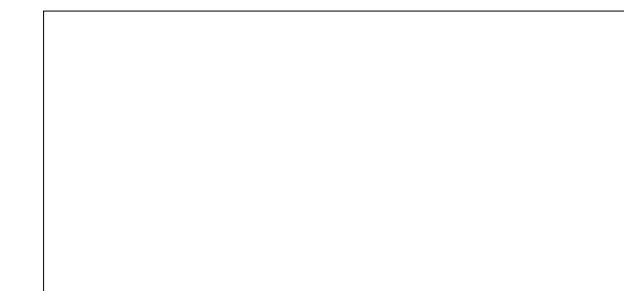
1866년에, 생명을 위협받는 큰 부상을 당한 메리 베이커 에디 여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치유에 대한 이야기 부분을 펼쳤다. 성령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실재라는 새로운 개념이 에디 여사의 생각에 물밀듯이 밀려오자, 그녀는 즉시 치유되었다. 그러나 에디 여사는 자신이 어떻게, 왜 치유되었는지 알기를 갈망하였다. 그 후 몇 년 동안 하나님의 근원적인 법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찾고 발견하였고, 이 법은 그녀가 가르치고 실천하는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근본이 되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과학을 통해 하나님과 자기 자신들의 관계를 더욱 잘 이해할 때, 자신들의 건강이 회복되고 성격에 변화가 왔다. 또한 각자의 치유 경험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고 경험하도록 돋고 싶은 진심 어린 마음을 불러 일으킨다.

크리스천 사이언스에 대해 더 알아보기

ChristianScience.com/korean 웹사이트를 방문한다.

- » “성경과 과학과 건강 부(附) 성서의 열쇠”의 책을 읽거나 구입한다.
- » 일요일 예배와 수요일 간증 모임에 직접 참석하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 » 크리스천 사이언스 독서실을 방문하거나 크리스천 사이언스 강연회에 참석한다.
- » 크리스천 사이언스 치유사, 선생님, 또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간호사를 찾아본다.
- » 대학 내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임에 관계한다.
- » 모교회母敎會, 과학자 그리스도 교회와 접촉한다.
- » 치유의 관한 글, 간증, 주간 성경학습을 찾고, 읽고, 듣는다.
- » 공공 프로그램이나 학술적 연구 조사를 위해 메리 베이커 에디 도서관과 접촉한다.



영적 치유의 사역

과학자 그리스도 교회는 성경과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의 실천이 혁신이자 정신인 기독교의 한 교파이다.

메리 베이커 에디 여사가 쓴 “과학과 건강 부(附) 성서의 열쇠 (*Science and Health with Key to the Scripture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치유라는 영적 바탕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설립하시고 자신의 사명을 유지하셨다.” 이것이 과학자 그리스도 교회의 지속적인 사명이다.

이러한 그리스도 치유 체계를 실천함은 150년이 넘는 동안 육체적이나 정신적 문제에 매우 의미 있는 치료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많은 간증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에서, 하나님은 항상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시는 존재이다. 기도의 힘은 단지 믿음에 만 있는 게 아니라 인류를 감싸주는 하나님의 신성한 법을 깊이 이해하는데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맞는 건강 관리법을 선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실천함으로 해서, 약들이나 다른 물질적 건강 관리 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살고 있다.

“나는 성령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생각이 영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신성한 과학에서는 하나님을 적어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각은 정직하고, 비이기적이고 순수해야만 한다.”

메리 베이커 에디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기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이론과 실천의 기반이다. 특히 예수님이 사역을, 우리의 참된 본성이 영적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치유와 거듭남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예증한다. 이러한 예들은 성경에서 아브라함, 야곱, 모세, 선지자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들을 따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메리 베이커 에디 여사의 평생에 걸쳐 한 영적 추구를 그녀는 나중에 발견이라 특징 지었다. 하나님의 법은 위대한 영적 권위이며, 인류를 치유하고 구원하며 축복하기 위해 항상 존재하고 작용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에디 여사에게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실천적인 기독교 신앙이었다.

그리스도 치유에 대한 메리 베이커 에디 여사의 점점 커져가는 실천 능력에 대해 그녀는 다음과 같이 썼다. 어느 날 그녀가 한 환자를 방문했는데, 그 환자는 명성 있는 담당 내과 의사가 폐렴으로 죽는다고 진단한 환자였다. “아무런 물질적 수단의 도움 없이 내가 즉각적으로 환자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고서, 그 의사는 내가 이 치유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물었고, 이 형이상학의 치유 체계를 세상에 설명하는 책을 쓸 것을 바로 권하였다” (“제일 과학자 그리스도 교회와 문집 *The First Church of Christ, Scientist, and Miscell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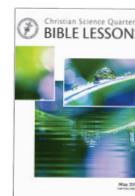
그 당시 에디 여사는 이미 글을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글이 그녀의 주된 역작, “과학과 건강 부(附) 성서의 열쇠 (*Science and Health with Key to the Scriptures*)”로 이어졌다. 이 책은 크리스천 사이언스에 대한 완전한 설명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과 치유의 실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자 그리스도 교회와 활동

성경은 과학과 건강과 함께 전 세계 교회의 목회자역할을 한다. 예배를 위한 설교와 읽을 구절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유용한 지침과 영감을 제공한다. 교회 활동과 예배는 교회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메리 베이커 에디 여사는 1879년에 과학자 그리스도 교회를 창립하였다. 미국 보스턴에 모교회母敎會가 있으며, 전세계에 지역적으로 조직된 과학자 그리스도 교회가 있다. 20세까지의 학생들을 위한 주일 학교는 성경과 시대를 초월하는 그 성경의 교훈을 어떻게 현재의 생활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을 기반으로 하는 수업이다. 치유의 간증을 포함한 수요 모임에서는 침석자들끼리 서로의 의견을 나눈다. 독서실에는 크리스천 사이언스에 대한 책과 잡지, 성경, 성경 참고 서적 등이 있으며, 누구나 이 모든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치유사와 크리스천 사이언스 간호사는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치유사는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 도우며, 크리스천 사이언스 간호사는 보살핌을 포함하여, 실용적이고 비의료적인 도움을 준다.



과학자 그리스도 교회는 젊은이와 성인들을 위한 영적 교육을 제공하며, 매년마다 평생 교육을 하는 공인된 크리스천 사이언스 선생님으로부터 영적 치유에 관한 2주 과정 교육 뿐만 아니라 주일 학교, 크리스천 사이언스 계간지에 나와 있는 주간 성경 학습을 특징으로 한다.

주간지, 월간 잡지들, 다양한 언어로 발간되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헤럴드 (*The Herald of Christian Science*)” 영어로 “**되** 크리스천 사이언스 센티넬 (*Christian Science Sentinel*)”과 “크리스천 사이언스 저널 (*The Christian Science Journal*)”, 이 모두는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실천과, 이로 인한 구원과 치유의 결실을 다룬 기사들과 실증된 간증들을 다룬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신문은 1908년 메리 베이커 여사에 의해 창간되었으며, 고통과 갈등에 관한 기사에 경계하듯이 진보와 약속에 관한 기사도 경계하며 사려 깊고 인도적이며 균형 잡힌 자세로 보도한다. 이 신문은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모든 인류를 축복하기 위해” 창간되었다 (*Miscellany*). 모니터 (*Monitor*) 신문은 여러 차례의 폴리처상을 받았는데, 그 많은 상에는 *CMSmonitor.com* 웹사이트, 주간지, 디지털 일간 뉴스 브리핑을 포함하고 있다.

